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엄선영* · 이강이**1)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협동과정*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겸 생활과학연구소**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Aum, Sun-Young* · Lee, Kangyi**1)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NU***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overall tendency of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during their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Also, examine the differences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before and after entering secondary education. For this study, a total of 781 adolescents from middle school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And some objects of study, a total of 119 adolescents had answered in the same questionnaire content at the end of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ings. First, adolescents'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was relatively good level, but perception of school safety appeared to be lower than average. Seco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was comparatively good, particularly school life adjustment and school peer adjustment appeared to be above averag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and school adjustment. Fourth, adolescents'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y entered middle school,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eacher support. Fift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before and after entering middle school, however school class adjust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entrance into middle school.

1) 교신저자: Lee, Kangyi,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51-742

Tel: 02-880-8747, Fax: 02-871-2506, E-mail: kangyil@snu.ac.kr

2)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350-20110028).

Key words: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school adjustment, transitional perio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자율성 추구, 또래 지향,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성에 대한 관심, 인지능력의 증가와 같은 발달 특성을 보인다. 이와 함께 중학교의 학교환경은 - 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 상대적으로 엄격한 학교의 규율, 교과전문 교사의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학생 간 친밀감 저하, 학업 부담의 증가와 상대평가로 인한 경쟁 심화의 양상 등을 보이면서, 중학교 진학이라는 전환기적 사건은 청소년에게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 전환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관해 살펴본 선행연구(Eccles & Midgley, 1990; Midgley, 2002; Roeser, Marachi, & Gelbach, 2002)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이 시기 동안 학업동기의 저하라든가 문제행동의 증가 등 부정적 양상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학교 진학 이후 청소년이 보이는 적응 양상의 변화는 측정시기 등의 연구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예: Hirsch, DuBois, & Brownell, 1992; Lord, Eccles, & McCarthy, 1994).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의 1학기 말에 해당하는 6월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중학교 생활을 경험한 이후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양상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중학교에 진학한 초기 전환기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중학교에 막 진학한 청소년이 보이는 학교환경지각이라든가 학교적응의 양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중학교 진학 이전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자료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찍부터 전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환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연구와 개입의 노력이 진행되어온 서구사회(Yoo, 2008)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

이라는 중요한 발달적 과업을 경험하는 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30년 간 전환기 연구가 공교육의 중요 관심대상으로 다루어져왔다(Akos, Queen, & Lineberry, 2005). 비록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예: 서울시교육청, 2010),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초보적인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전환기 청소년이 보이는 초기의 학교환경지각이라든가 학교적응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막 중학교에 진학한 초기 전환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과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이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환경을 지각하고 이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가정과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은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 연구문제3.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이 보이는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문헌 고찰

1. 중학교 진학 전환기 연구의 필요성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인간과 그가 살고 있는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 인접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 Bronfenbrenner(1979)에 따르면, 특히 주변 환경의 변화가 큰 전환기(transitional period)는 새로운 체계에 대한 적응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Bronfenbrenner는 부분, 전체 체계, 또는 체계들 간의 조합이 주요 전환을 거치는 중대한 변화를 ‘생태학적 전환’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생태학적 전환은 민감성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발달을 강화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전환기 경험으로는 오래된 미시체계가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미시체계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는 경우가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 상급학교에 입학한다거나 전학, 졸업하는 경험이에 해당한다. 생태학적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적응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개인에게는 진정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생활사건이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전환기이기도 하다. 즉, 개인 내적으로나 개인 외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들어서서는 중학교 진학 전환기는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한 만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에서 중등으로의 진학을 경험하는 전환기의 적응이 공교육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져왔다(Akos, Queen, & Lineberry, 2005). 국내의 경우, 지난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게 창의·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전

환기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는, 전환기 청소년들이 상급 학교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청소년의 이탈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있다.

2.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일반적으로 학교환경지각³⁾은 청소년의 학업동기와 학업성취, 심리적 안녕, 자존감, 자기결정성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Garmezy(1991)에 의하면, 학교분위기가 반응적이며 뚜렷한 규범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학생이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이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교사가 있을 때, 학생의 긍정적인 적응유연성이 발달한다. Eccles와 Roeser(2011)에 의하면, 청소년이 학교환경을 경쟁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성취와 자존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의 적응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Kim & Shin(2010)에 의하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의 심리적 환경은 학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지원적 관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생의 자기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은 이들의 발달과 적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지만, 중학교 진학 전환기의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의 학교환경지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본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지각을 학교분위기 지각, 학교에서의 안전도 지각, 선생님들의 지지도 지각, 공부에 대한 의욕 지각으로 나누어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이 보이는 학교환경지각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환기 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 진학한 상급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태도라든가 만족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업성적

3) 학교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성되지만, 물리적 환경보다 심리적 환경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환경 중 물리적 환경을 제외하고 심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을 살펴보겠다.

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준다(Ann, 1984).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Midgley, 2002; Roeser et al., 2002)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학업수행이 저하되고 학교에 대한 동기가 감소되는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ullins와 Irvin(2000)에 따르면, 특히 초등학생 때 결석을 자주 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경우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에 비해 학업 성적과 경쟁이 강조되는 중학교의 분위기로 인해 오히려 학생의 목표의식이 감소하고 학업 효능감도 저하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Eccles, Midgley, Wigfield, Buchanan, Reuman, Flanagan, & MacIver., 1993; Schumacher, 1998). 그렇지만 전환기 청소년이 보이는 학교적응의 양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이 중학교에 막 진학한 시기의 전환기 청소년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양상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이 보이는 학교적응의 양상이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들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특정 교과 학습 내용에 전환기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관련 연구를 통해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에 있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의 주요 구성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환기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지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그 중에서도 가정과 교과 운영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의 발생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7

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가정·기술교과의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에서 기존의 시간 관리과 여가 관리에 더하여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관리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도부터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를 기술·가정교과 시간에 배우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특히 학교환경의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경험하는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의 양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접근할 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수하는 ‘스트레스 관리’ 단원의 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직면한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과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 이후의 학업성취와 진로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이라든가 학교적응에 대해 살펴본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가정의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부모변인, 학업 성적 등의 요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학년에 따른 학교환경지각 또는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더라도 주로 횡단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기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상대적으로 학교 및 학업 환경의 변화 폭이 큰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전환기 청소년의 초기 양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중학교에 진학한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의 1학년 전체 학생 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부실 기재된 22명을 제외하고 총 781명의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남학생: 386명, 49%, 여학생: 395명, 51%)을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2개 중학교로 배정받은 인근의 1개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6학년 말에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2개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126명이 표집되었으며, 이 중 부실 기재된 7명을 제외하고 총 119명(남학생: 56명, 47%, 여학생: 63명, 53%)을 연구문제3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⁴⁾

2. 연구도구

1) 학교환경지각 척도

이 연구에서는 예일대 아동연구센터에서 개발하고 Lee 등이 변안한 ‘학교에 대한 지각’ 질문지(2002)와 Roser 등이 개발하고 Moon이 변안한 ‘숙달목표 강조와 수행목표 강조’ 질문지(2002)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학교환경지각 척도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분위기 지각 7문항, 학교에서의 안전도 지각 6문항, 선생님들의 지지도 지각 8문항, 공부에 대한 의욕 지각 7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분위기 지각은 학생이 학교와 교실, 수업 환경 등을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며(예: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통제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낸다), 학교에서의 안전도 지각은 학생이 학교는 물론 등하교 길과 학교 주변을 안전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학교 앞은 안전하다). 선생님들의 지지도 지각은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지지도를 학생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예: 대부분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기꺼이 도와주려 하신다), 공부에 대한 의욕 지각은 학생이 학교의 수업분위가 숙달 지향적인지, 수행 지향적인지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선생님들은 학교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강조하신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⁵⁾,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학교분위기 지각 .682, 학교에서의 안전도 지각 .764, 선생님들의 지지도 지각 .714, 공부에 대한 의욕 지각 .514, 전체 신뢰도 .822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 척도

이 연구에서는 Kim(2000)가 제작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학교환경 적응 9문항, 학교교사 적응 9문항, 학교수업 적응 8문항, 학교친구 적응 8문항, 학교생활 적응 7문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교환경 적응은 학생이 학교환경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해가는 정도를 의미하며(예: 나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학교교사 적응은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해가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수업 적응은 학생이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상황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정도를 의미하며(예: 나는 학교 수업시간 중에 한눈 팔지 않는다), 학교친구 적응은 학생이 학교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적절히 조절하며 대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고 재미있게 지낸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요구되

4)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2011년 2월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2011년 3월말에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중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모두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119명으로, 이에 따라 연구문제3의 분석대상 자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은 단기 종단적으로 2차에 걸쳐 자료가 수집된 동일 학생에 해당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5) 일부 문항의 경우 역코딩 처리하였다.

는 규칙과 질서, 전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며 대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 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학교환경 적응 .889, 학교교사 적응 .872, 학교수업 적응 .826, 학교친구 적응 .759, 학교생활 적응 .782, 전체 신뢰도 .94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서울시 소재 1개 초등학교의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2월초(학년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6학년생이 주로 배정되는 인근의 2개 중학교의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3월말(학년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결과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 228부의 설문지(6학년 대상)가 수거되었으며, 2차 조사 결과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 781부의 설문지(중학교 1학년 대상)가 수거되었다. 1차와 2차에서 수거된 질문지 중 동일한 학생이 6학년말과 중학교 1학년초의 질문지에 모두 응답한 경우가 11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서는 중학교 1학년 781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환기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연구문제 3에서는 1차 및 2차 조사에서 모두 설문조사에 참여한 119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 차이를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t검증,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의 양상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교환경지각의 점수는 평균 2.71점(SD=0.31)으로, 중학교에 막 진학한 전환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환경의 점수는 보통 이상이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공부에 대한 의욕 지각은 평균 2.79점(SD=0.3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분위기 지각은 평균 2.78점(SD=0.44), 선생님의 지지도 지각은 평균 2.77점(SD=0.41), 학교에서의 안전도 지각은 평균 2.50점(SD=0.54)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은 자신이 막 진학한 중학교 환경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위영역별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교에서의 안전도를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n=781)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M(SD)
Atmosphere of the school	2.78(.44)
School safety	2.50(.54)
Teacher support	2.77(.41)
Motivation for studying	2.79(.37)
Total	2.71(.31)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교적응의 점수는 평균 2.63점(SD=0.40)으로, 학교환경지각과 마찬가지로,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점수는 보통 이상이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생활 적응이 평균 2.90점(SD=0.44)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친구 적응이 평균 2.79점(SD=0.43), 학교수업 적응이 평균 2.60점(SD=0.52), 학교교사 적응이 평균 2.50점(SD=0.54), 학교환경 적응이 평균 2.45점(SD=0.54)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은 중학교의 생

활에 비교적 적응하고 있는 편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등의 학교생활 영역에 상대적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든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반영되어, 선행연구와는 달리 비교적 긍정적인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의 양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n=781)

School adjustment	M(SD)
Setting adjustment	2.45(.54)
Teacher adjustment	2.50(.54)
Lesson adjustment	2.60(.52)
Peer adjustment	2.79(.43)
Living adjustment	2.90(.44)
Total	2.63(.40)

이처럼 중학교에 막 진학한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점수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인 결과는 중학교 진학이라는 전환기적 사건이 초등학교와는 변화된 학교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학교환경지각 이라든가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시한 선행연구(Yoo, 2008; Jeong, 2005)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에서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을 조사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조사를 실시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들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을 조사하였다. 중학교 진학 이후 아직 첫 중간고사도 경험하지 않은 시기로, 초등학교와는 달라진 학업 부담이라든가 평가 체계 등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감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중학교 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지라

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의 관계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이 하위 영역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Table 3>),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환경지각 중 선생님의 지지도 지각이 - 학교환경지각의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서, 학교교사 적응(r=.563, p<.01), 학교환경 적응(r=.489, p<.01), 학교생활 적응(r=.401, p<.01), 학교수업 적응(r=.377, p<.01), 학교친구 적응(r=.317, p<.01)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지각 중 학교분위기 지각의 경우에는 학교환경 적응(r=.326, p<.01) 및 학교생활 적응(r=.302, p<.01)과의 정적 상관이 비교적 높았으며, 학교안전도 지각의 경우에는 학교환경 적응(r=.484, p<.01)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교환경지각 중 공부에 대한 의욕 지각은 학교교사 적응(r=.362, p<.01) 및 학교생활 적응(r=.321, p<.01), 학교환경 적응(r=.320, p<.01)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이 보이는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은 상호 관련이 있으며 학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적응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학교환경지각 중에서도 특히 선생님의 지지도에 대한

Table 3. Correlation of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with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				
		Setting adjustment	Teacher adjustment	Lesson adjustment	Peer adjustment	Living adjustment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Atmosphere of the school	.326**	.245**	.208**	.215**	.302**
	School safety	.484**	.292**	.192**	.326**	.258**
	Teacher support	.489**	.563**	.377**	.326**	.401**
	Motivation for studying	.320**	.362**	.258**	.326**	.321**

** p<.01

중학생의 지각이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영역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결과는 교사의 지지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학업 동기 등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Lim, 2001; Kim, Kim, 2004; Barber & Olsen, 2004; Burchinal, Roberts, Zeisel & Rowley, 2008; Hattie, 2009; Eccles & Roeser, 2011), 학교분위기가 예측 가능하고 제도 자체가 반응적일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높아진다(Kwon, 2010; Garnezy, 1991; McNeal & Bishop, 1993)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3.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차이

전환기 청소년이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에 보이는 학교환경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4>), 전체 학교환경지각은 중학교 진학 이전(M=2.73, SD=.32)에 비해 중학교 진학 이후(M=2.67, SD=.33)에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2.42, p<.05). 이는 전환기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진학 이전에 비해 중학교 진학 이후에 학교환경을 덜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학교환경지각의 하위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하위영역 중 선생님의 지지도 지각에서만 나타났다. 즉, 전환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선생님 지지도는 중학교 진학 이전(M=2.92, SD=.45)에 비해 중학교 진학 이후(M=2.77, SD=.44)에 유의미하게 낮아져서(t=3.75, p<.01), 중학교 진학 이전에 비해 중학교 진학 이후 선생님의 지지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지도는 학생의 학교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Burchinal et al., 2008;

Hattie, 2009; Wentzel & Wigfield, 2007),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교사의 지지도가 낮다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Kim, Kim, 2003)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에 학교환경을 지각하는데 있어 특히 선생님의 지지도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담임교사가 전 교과목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담임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교과목별로 담당 교사가 바뀌는 중학교의 교사 환경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환기 청소년이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에 보이는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Table 5>), 전체 학교적응은 중학교 진학 이전(M=2.50, SD=.37)과 이후(M=2.57, SD=.41)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영역 중 학교수업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수업 적응의 경우, 중학교 진학 이전(M=2.33, SD=.42)에 비해 진학 이후(M=2.50, SD=.59)에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서(t=-3.31, p<.01) 전환기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진학 이전에 비해 진학 이후에 학교의 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상황을 더 수용하고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의 경우, 중학교 진학 이전(M=2.73, SD=.42)에 비해 진학 이후(M=2.83, SD=.47)에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서(t=-2.26, p<.01) 전환기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진학 이전에 비해 진학 이후에 학교생활에 요구되는 규칙, 질서, 전달 내용 등을 더 잘 파악하며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일부 하위영역, 구체적으로는 학교수업적응 및 학교생활적응에서 중학교 진학 이전보다 중학교 진학 이후 오히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 진학 이후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Table 4.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the entering middle school(N=119)

Perception of school environment	Before the entering middle school M(SD)	After the entering middle school M(SD)	t
Atmosphere of the school	2.78(.49)	2.75(.51)	.68
School safety	2.38(.53)	2.36(.56)	.37
Teacher support	2.92(.45)	2.77(.44)	3.75**
Motivation for studying	2.86(.38)	2.79(.40)	1.81
Total	2.73(.32)	2.67(.33)	2.42*

* p<.05, ** p<.01

Table 5. School adjustment before and after the entering middle school(N=119)

School adjustment	Before the entering middle school M(SD)	After the entering middle school M(SD)	t
Setting adjustment	2.27(.54)	2.34(.55)	-1.25
Teacher adjustment	2.55(.55)	2.46(.55)	1.72
Lesson adjustment	2.33(.42)	2.50(.59)	-3.31**
Peer adjustment	2.64(.54)	2.73(.49)	-1.70
Living adjustment	2.73(.42)	2.83(.47)	-2.26**
Total	2.50(.37)	2.57(.41)	-1.88

* p<.05, ** p<.01

선행연구 결과(Jeong, 2005; Yoo, 2008)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문화적 수준의 U 곡선을 제안한 Oberg(1960)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Oberg(1960)에 따르면, 특정한 문화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시기의 개인은 초기에는 일종의 밀월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열정과 환상을 갖게 되어 높은 수준의 적응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 점차 적응의 정도가 낮아진다. 그러다가 다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적응을 하는 일종의 U자 곡선을 보인다. 이를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적용해보면, 중학교에 막 진학한 전환기 청소년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초등학교와는 달라진 학교수업의 제반 상황에 열심히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새로운 학교생활에 요구되는 규칙이라든가 전달 내용을 잘 수용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채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의 양상 및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중학교 진학 이전과 진학 이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 막 진학한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조사대상 중학교에 배정되는 인근의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학년 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지 채 한 달이 경과되지 않은 전환기 초기의 청소년이 보이는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며, 이는 새로운 학교생활의 출발에 대한 기대감과 각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이 보이는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 간의 상호관련성을 통해 볼 때, 전환기 청소년이 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이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생님의 지도도에 대한 중학생의 지각이 학교적응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임을 고려할 때,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시된다. 셋째, 중학교 진학 이전과 진학 이후에 전환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환경지각에 있어 특히 선생님의 지도도 지각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중학교에 진학한 전환기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제와는 다른 과목별 담당 교사제라는 변화 속에서 교사와의 관계 또는 선생님의 지도도 지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학교 진학 이전에 비해 진학 이후 일부 학교적응의 점수가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 것은, 앞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과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바, 중학교라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초등학교와는 달라진 학교수업의 제반 상황에 열심히 참여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에 요구되는 규칙이

라든가 전달 내용을 잘 수용하는 전환기 청소년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의 결론을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음의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1개 중학교 및 인근의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를 가진다. 보다 많은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축적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성별이라든가 학업성적 등의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학의 초기 시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Yoo(2008)에 따르면,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과 자율에 대한 인정’인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존중받지 못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는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이 이들 전환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교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내용과 이 연구에서 확인된 교사와의 관계 또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함께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는 막 중학교에 진학한 전환기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또는 문제를 인지하고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 청소년의 경우, 특히 이들이 경험하는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의 양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접근할 때 가정과 교사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수하는 ‘스트레스 관리’ 단원의 학습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가정과 교과의 연계성을 통해 이들의 대인관계 능력, 특히 교사와의 관계 맺기와 관련된 기술 또는 능력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이라든가 교사와의 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기술 등의 실천적 내용을 교과 내용에 포함시키거나, 청소년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긍정적인 사고를 돕는 구체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도입하여 스트레스 관리 단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발생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에 진학해서 아직 첫 중간고사를 치루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새로운 결심과 높은 의욕, 긍정적인 태도가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 전반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는 중학교에 막 진학한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교과과정 초반부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활 및 학업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과 교사뿐만 아니라 이들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들 모두 중학교 진학 초기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관리의 효과성을 인지하고 이들이 긍정적으로 학교환경을 지각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수안 및 생활지도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Akos, P., Queen, J., & Lineberry, C. (2005). *Promoting a successful transition to middle school*. Larchmont, NY: Eye on Education.
- Ann, Y. B. (1984). The characteristics of adjustment and behavior and their relative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uk University, Seoul, Korea.
- Barber, B. K., & Olsen, J. A. (2004). Assessing transitions to middle and high schoo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 3-30.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chinal, M. R., Roberts, J. E., Zeisel, S. A., & Rowley, S. J. (2008). 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4*, 286-292.
- Eccles, J. S., & Midgley, C. M. (1990). *Change in academic motivation and self-percep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Montemayor, R., Adams, G. R., & Gullatta, T. P.(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pp. 134-155.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Eccles, J. S., Midgley, C. M., Wigfield, A., Buchanan, C. M., Reuman, D., Flanagan, C., & Mac Iver, D. (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the impact of stage-environment fit o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in schools and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48, 90-101.
- Eccles, J. S., & Roeser, R. W. (2011). Schools as developmental context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225-241.
- Garn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 Annals*, 20(9), 459-463.
- Hattie, J. (2009). *Visible learning*. New Jersey, NY: Routledge.
- Hirsch, B. J., DuBois, D. L., & Brownell, A. B. (1992). Trajectory analysis of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policy.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10, 83-101.
- Jeong, H. H. (2005). Change Pattern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Middle School Transition. *The journal of counseling*, 6(2), 573-586.
- Kim, D. H., & Kim, H. J. (2003). A Study on First-grade Student's Lives right after Their Entrance into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1(4), 1-24.
- Kim, M. S., & Shin, T. S. (2010). Test of a structural model among school's psychological environments, self-determination, self-regulated behavior, student achievement, and school satisfa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2), 43-70.
- Kim, Y. R. (2000).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A) & school-related coping scale(B) and relations between (A) & (B). *Hongik education center*, 17, 3-37.
- Kim, Y. R., & Kim, T. E. (2004). Learner's stress, school-related coping and academic achievement. *Hongik education center*, 21, 5-31.
- Kwon, K. J. (2010).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ived sociopsychological environments of classroom, children's emotion and adaptability to school.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6(2), 21-40.
- Lee, S. H., Kim, E. J., Kim, M. Y., Ko, B. J., & Park, D. H. (2002).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of adolescent mental health*.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Seoul.
- Lim, Y. S. (2001). Relation of learning motivation, nonacademic self-concept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Lord, S. E., Eccles, J. S., & McCarthy (1994). Surviving the junior high school transition: Family processes and self-perceptions as protectiv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162-199.
- McNeal, C. C., & Bishop, H. (1993). *A comparative assessment of school environment by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children: Implications for public school leader in Alabam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Sout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New Orleans, LA, Nov. 10-12).
- Midgley, C. M. (2002). *Goals, goal structures, and patterns of adaptative learning*. Mahwah, NJ: Erlbaum.
- Moon, E. S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chool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academic goal orienta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6(4), 5-21.
- Mullins, E. R., & Irvin, J. L. (2000). Transition into middle school: What research says. *Middle School Journal*, 31(3), 57-60.
- Oberg, K. (1960).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 *Practical Anthropology*, 7, 177-182.
- Roeser, R. W., Marachi, R., & Gellbach, H. (2002). *A goal theory perspective 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ies and the contexts of teaching*. In Midgley, C. M. (Ed.), *Goals, goal structures, and patterns of adaptative learning*. pp 205-241. Mahwah, NJ: Erlbaum.
- Schumacher, D. (1998).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Washington, D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 Wentzel, K. R., & Wigfield, A. (2007). Motivational interventions

that work: themes and remaining issues. *Educational Psychologist*, 42, 261-271.

school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7), 157-180.

Yoo, S. H. (2008).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middle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과 이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양상이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2개 중학교의 1학년 전체 학생 781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 초기인 3월말에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2개 중학교에 배정받는 인근의 1개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6학년 말에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후 조사대상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126명이 표집되었으며, 부실 기재된 경우를 제외한 119명의 학교환경지각 및 학교적응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하위영역 중 학교에서의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둘째,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특히 학교생활과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과 학교적응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지각 점수는 중학교 진학 이전에 비해 진학 이후에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교사 지지도에 대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다섯째,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점수는 중학교 진학 이전과 이후에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학교수업적응과 학교생활적응에서는 중학교 진학 이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5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8월 20일